안녕하세요, 윤보영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프리코드캠프입니다.

프리코드캠프는 풀스택 웹개발을 배울 수 있는 교육용 플랫폼입니다.

창시가 퀸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튜토리얼 형식으로 따라가기 쉽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한 다큐먼터리를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총 600줄 내의 문서입니다.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건 수월했습니다. 우선, 수업에서 연습을 한 번 해 보았고 또 프로젝트에서 별도로 잘 정리된 문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깃팟과 닷커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여서 다운받아 설치까지는 해 보았다가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닷커랑 깃팟 설명하는 화면

어떻게 그 번역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는지?

개발 환경을 설정하려고 이 문서를 열었을 때 맨 처음에 보았던 게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는 문구였다. 총 18개의 언어로 리드미, 코드오브건덕트 그리고 하우투셋업프리코드캠프로컬리 이 세 가지 문서가 대체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내 언어인 한국어에는 리드미와 코드오브건덕트 이 두 문서만 번역되어 있어서 하우투셋업프리코드캠프로컬리를 번역하게 되었다.

쉬울 줄 알았던 번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일단 두 언어의 문법이 완전히 달라서 번역투를 없애고 한국문장으로 매끄럽게 만드는데 애를 먹었고, 영어 단어를 모르는게 있어서 사전을 자주 찾았으며 귀찮을 때는 구글 트랜스기를 이용해서 한 번 번역한 다음에 매끄럽게 다듬기를 하기도 했다.

코드오브컨덕트에서 작은 문법상의 에러나 스펠링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슈화 없이 바로 변경 사항을 풀 리퀘스트화하라고 적어 놨었는데, 문서 하나를 통째로 번역하는 건 어떨지 몰라서 이슈화 해서 물어봤다. 몇 명의 사람들이 바로 번역하라고 해서 작업을 진행했다.

짧지 않은 문서라서 하다가 자주 지루해졌다. 한 번은 다른 거 할 건 없나 싶어서 열려 있는 이슈 목록을 보다가 퍼스트타이머프렌들리 라벨을 가진 걸 보았다. 자바스크립트의 한 튜토리얼에서 바운더리가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는 거 같다고 하는 거였다. 그 이슈에는 튜토리얼을 본문이 실려 있었는데, 왜인지 오타인 거 같은 게 있어서 이슈화 할까 말까하다가 잃을 게 뭐 있나 이상하다 싶으면 그쪽에서 무시하겠지 뭐 하는 생각으로 내가 생각했 대로 고쳐서 풀 리퀘스트 했다.

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더레이터가 나의 황당할 수도 있는 이슈를 비웃지 않고 친절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바로 답변해 주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음에는 마스터 브랜치가 아닌 해당 이슈에 관한 브랜치를 만들어 풀 리퀘스트하라며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한 조언까지 해 주었다.

그래서 다 끝마친 번역 파일을 풀 리퀘스트화 했을 때는 당연히도 브랜치를 새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파일 2개가 변경 되었다는 걸 보았다. 이상해서 들여다 보니 이전에 마무리된 줄만 알았던 오타 파일이 내가 변경한 그 상태로 같이 풀 리퀘스트 목록에 있었다. 당황한 나는 그냥 그 상태에서 파일을 지워 버렸고, 같은 모더레이터가 실시간으로 그렇게 지워 버리면 나중에 멀지할 때 문제가 있으니 리버트하라고 지시해서 바로 그에 지시에 따랐다.

번역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는데 깃허브와 커맨드 라인을 이용한 컨츄리부션의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 운이 좋게도 되게 빠르게 그 실수를 지적하고 고치는 방법을 바로 제시해 주는 프로젝트 모더레이터를 만나서 배운 게 많은 좋은 경험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다. 다른 일을 하는 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풀리퀘스트와 이슈에 제일 먼저 답을 달고, 매일 컨트리뷰션을 하는 걸 보아서 되게 이 프로젝트에 애정이 남다른 거 같아 보인다.

원래 내가 첫번째로 선택한 프로젝트는 이게 아니었다. 그 프로젝트에서도 번역을 하고 있다가 다른 학생들은 뭘 선택했나 궁금해서 리스트를 보다가 같은 걸 선택해도 되는 걸 보고서 프로젝트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 왜냐면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그냥 과제를 위해서 선택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하고 겹치면 안 되는 줄 알고 찾고 찾다가 찾은 거였지 사실 별 관심이 없었다. 프리코드캠프는 이전부터 들어 보기는 했었는데 그 프리라고 하는 데에서 왜인지 스캠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어떤 컨텐츠인지 본 적이 없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냐하는 불신에서 그랬는데 마르코랑 ---이 선택한 걸 보고서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다. 번역 하는 일이였기 때문에 따로 팀원들하고 이야기할 건 없었는데 사실 둘이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덕분에 현재 나도 프리코드캠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다.

다음에도 뭘 한다면 이 프리코드캠프 프로젝트를 선택할 거다. 튜토리얼 본문을 번역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나처럼 영어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준비한 발표이고 따로 질문이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겠다. 들어줘서 땡큐!